이경수 "내겐 정신력 빼곤 답이 없다"

여전히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
그러나 부상은 안고 가야할 현실
나를 믿는 후배들, 곧 태어날 셋째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이를 악문다

LIG 32세 맏형 부활의 비밀

2011-2012 NH농협 V LEAGUE

"정신력으로 열심히 뛴다. 그 외엔 방법이 없다"

시즌 초반 연패의 늪에 빠졌던 LIG손해보험이 대한항공과 드림식스를 잇따라 꺾고 부활의 날개를 폈다. 팀을 위기에서 끌어올린 선수는 팀 내 최고참인 이경수(32)다. 현역 선수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경수는 고질적인 허리와 무릎 부상으로 수비 위주의 레프트 포지션을 소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전성기 시절에 근접하는 공격력을 발휘하며 팀을 이끌고 있다. 노장 투혼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부상은 현실, 하지만 안고 간다!

이경수의 부상은 가볍지 않다. 연습할 때 무릎에 통증을 느낀다. 더 과감한 공격을 하고 싶지만 늘 부상 부위가 발목을 잡아왔다. 하지만 그는 위기에 빠진 팀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

"무릎이 아프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컨디션이 좋다. 부상은 이제 안고 가는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 외에는 괜찮다."

이경수는 LIG에서 단순히 한 명의 주전 선수가 아니다. 팀 내 최고참인 이경수의 행보 하나하나는 그대로 후배들의 귀감이 된다.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100% 연습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다.

"경기를 할 때보다 연습 때 무릎이 더 아프다. 하지만 모든 연습에 다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 후배들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아내와 아이들이 이경수의 힘

이경수는 곧 세 아이의 아빠가 된다. 큰 아이는 6살, 막내는 2살. 그리고 셋째는 아내의 뱃속에 있다(임신 중). 그는 "세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경수는 이를 악물었다. 팬들의 기대가 때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는 가장의 마음이 바로 이경수가 투혼을 발휘하는 원동력이다.

그는 "약간 무리가 될 때도 있지만 소화 못할 정도는 아니다. 부상 치료와 보강 훈련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다. 이 역시 정신력에서 나오는 철저한 자기 관리의 결과다.

이경수는 팀을 반드시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김영래(세터, 대한항공 황동일과 트레이드) 선수가 들어오면서 팀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졌다. 또 짧은 기간 호흡을 맞춘 것 치고는 플레이도 잘 맞고 있다. 이제 2라운드이고 많은 경기가 남았다. 지금처럼만 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LIG손해보험 최고참 이경수는 고질적인 허리와 무릎 부상에도 궂은 플레이를 마다하지 않으며 팀의 공수를 책임지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대한항공 격침…상무신협 쿠데타

3-2로 꺾고 8연패 끝 첫승 환호

상무신협이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인 대한항공을 격파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상무신협은 22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1~2012 V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대한항공을 세트스코어 3-2(18-25 28-26 30-28 23-25 16-18)로 이겼다. 상무신협이 대한항공을 꺾은 것은 지난 1월11일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로써 상무신협(1승8패)은 8연패 끝에 귀중한 첫 승을 따냈다. 대한항공은 5승3패(승점 15점)로 3위 수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항공의 플레이는 더 없이 실망스러웠다. 2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LIG손해보험에 뼈아픈 일격을 당하고, 상무신협에도 덜미를 잡혔다. 올림픽 예선전 참가를 위해 슬로바키아로 떠난 용병 마틴(라이트·슬로바키아)의 공백을 논하기에는 상대가 아마 팀 상무신협이라는 점에서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수비와 공격 조합에서 상무신협에 완전히 당했다. 속공은 사라지고 위기마다 김학민에게 의지했지만 상무신협의 준비된 블로킹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대한항공은 마틴 대신 라이트로 투입된 김학민(40점)과 레프트 곽승석(24점)의 활약을 앞세워 1,4세트를 따냈지만, 2,3,5세트를 모두 듀스 접전 끝에 내주며 위기관리능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반면 상무신협은 강동진(20점), 김진만(15점), 권혁모(14점), 김나운(14점) 등 주전 공격수들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고른 활약을 펼치며 대한항공이라는 거함을 격침시켰다.

인천 | 원성열 기자



흥국생명 미아가 22일 열린 도로공사와 V리그 여자부 경기에서 1세트를 따낸 뒤 포효하고 있다.
인천 |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편집 |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 @ajapto

흥국, 1위 도공 잡고 꼴찌 탈출

부상탈출 미아 24점 팡팡…3-0 완승

1등(도로공사)과 꼴찌(흥국생명)의 대결에서 꼴찌 팀이 웃었다.

흥국생명은 22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1~2012 V리그 2라운드 홈 경기에서 도로공사를 세트스코어 3-0(25-14 25-17 25-14)으로 꺾고 2연패 끝에 소중한 1승을 챙겼다. 도로공사는 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보태 9점으로 GS칼텍스(7점)를 따돌리고 5위로 올라섰다.

지난 시즌 챔피언 현대건설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로공사를 제압했다는 점에서 이날 승리는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신감 회복이 가장 큰 소득이다.

흥국생명은 여자배구월드컵에 파견됐던 김혜진과 주예나가 복귀해 공수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잦은 범실을 하며 에이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미아(24점)가 허리 부상에서 회복돼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도로공사를 완파했다.

이날 승부처는 2세트였다. 흥국생명은 미아를 비롯해 주전선수들의 고른 득점을 바탕으로 1세트를 손쉽게 따냈지만 2세트에서는 11-14까지 끌려가며 고전했다. 하지만 미아와 나혜원의 활약을 앞세워 14-14 동점을 만든 뒤 끈질긴 디그로 상대 실수를 유도해 내리 6점을 따내면서 세트를 가져왔다.

반면 도로공사는 특유의 조직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2세트에서만 11개의 범실을 기록하며 자멸했다. 3세트에서도 이렇다할 공격을 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경기를 내줬다.

인천 | 원성열 기자

테일러메이드, 올 최고 골프브랜드 선정

테일러메이드가 올해 최고의 골프용품 브랜드로 선정됐다. 테일러메이드는 골프매거진이 22일 발표한 '2011 브랜드마케팅 랭킹'에서 1위에 올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이번 랭킹은 소비자 200명과 골프숍 6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각각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해 순위를 매겼다. 테일러메이드는 소비자 선호도 부문 644점, 골프숍 선호도 부문 1028점, 톱 9 골프숍 선호도 부문 57.5점, 내년이 기대되는 브랜드 부문 93점 등 총점 1822.5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2위는 타이틀리스트(1696점), 3위는 핑(1,452.5점), 4위는 야마하(1,235.5)에게 돌아갔다.

박희영 세계랭킹 21계단 점프 37위

미 LPGA 투어 2011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그룹 타이틀홀더스에서 우승한 박희영(24·하나금융그룹)이 세계 랭킹 37위에 올랐다. 지난주 58위였던 박희영은 이번 대회 우승에 힘입어 21일 현재 37위로 껑충 뛰었다. 박희영과 우승 경쟁을 벌인 산드라 갈(독일)은 44위에서 6계단 오른 38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청야니(대만)가 41주째 1위를 지킨 가운데 한국 선수로는 최나연(24·SK텔레콤)이 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KLPGA 결산 | 숫자로 본 2011 시즌

'스마일퀸' 김하늘(23·비씨카드)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새 여왕으로 등극한 가운데 2011 시즌이 막을 내렸다. 올해는 모두 19개 대회(하나은행챔피언십 제외)가 열렸다. 작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현대차이나레이디스오픈을 시작으로 21일 끝난 ADT캡스 챔피언십까지 19개 대회로 치러졌다. 우승자는 모두 17명. 김하늘이 유일하게 3승을 거뒀고, 나머지 16명은 1승씩 기록했다. 2011년 KLPGA 투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숫자로 되돌아봤다.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막을 내렸다. 김하늘이 시즌 3관왕에 오르며 KLPGA 새 여왕으로 등극했다. 스포츠동아 DB

김하늘 홀로 '삼삼'했다

3 유일한 3승에 상금왕 등 3관왕 영예

김하늘은 올해 '3'이라는 숫자와 인연이 깊었다. 4월 현대건설 여자오픈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김하늘은 6개월 뒤인 10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2승, 11월 KJY골프여자오픈에서 3승째를 신고했다. 이 우승으로 대상과 상금왕, 다승왕에 오르면서 시즌 3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7 심현화 등 7명의 선수 생애 첫우승

7명의 선수가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국내 개막전인 롯데마트여자오픈에서 심현화가 첫 우승으로 테이프를 끊었고, 5월 한국여자오픈에서는 루키 정연주가, 이어 열린 러시앤캐시 채리티클래식에서는 이승현이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윤슬아는 6월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프로 데뷔 5년 9개월 맛에 첫 승을 신고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이후에도 이미림(에쓰오일 챔피언스)과 변현민, 박유나가 데뷔 첫 우승을 신고했다.

10 한화금융클래식 상금 10억시대 활짝

역대 처음으로 상금 10억 원 시대가 열렸다. 9월 한화금융클래식은 총상금 10억원에 우승상금 2억 원을 내걸어 역대 국내 최다 상금 대회로 열렸다. 이전까지 국내 최다 상금 대회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개최됐던 하이원리조트컵 채리티 여자오픈으로 총상금 8억원이었다.

31 억대 상금 31명…작년보다 5명 늘어

올해 1억 원 이상의 상금을 벌어들인 선수는 모두 31명으로, 작년보다 5명 늘어났다. 김하늘이 총상금 5억2429만7417원으로 상금랭킹 1위에 오른 가운데 장지혜가 1억240만5004원으로 억대 연봉자에 합류했다. 총상금 3억 원 이상은 4명, 2억~3억원 미만 8명, 1억~2억원 미만 17명으로 역대 최다 억대 연봉 선수가 탄생했다.

309 내년 시드 최종예선 진출 선수 309명

2012년 KLPGA 투어 시드를 확보하기 위해 최종 예선전에 오른 선수는 모두 309명이다. 작년 332명에 비해 23명 줄었지만 올해도 약 6대1이 넘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1차와 2차 예선 통과자와 올해 KLPGA 투어 상금랭킹 51위 이하의 선수까지 총 120명이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마지막 본선을 통과해야 내년 시드를 받을 수 있다. 40위까지 들어야 모든 대회에 출전을 보장받는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